

분류	주일강단 1부
제목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경	롬8:12-17
일시	2024년 3월 24일
장소	성암교회
강사	정영신 목사 (정리: 김홍구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로마서 8:12-17)

롬8: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롬8: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롬8: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롬8: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롬8: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롬8: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롬8: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 독취 자료 ♣

서론)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령에 속한 자),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육에 속한 자) 불신자를 말한다, 그리고 중간자(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율법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에 메인자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한 가지 것이라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길 가는데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이다. 버릴 것과 채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고 했다. 지나간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새 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론)

1.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1:9)(사41:10)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도에 있는 자이다. 하나님 자녀이다.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수1:9, 여호수아가 2번째 지도자가 되어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이전에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야 하는 것이다. 40년의 광야의 길을 가고 가나안에는 7족속 31왕이 있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근거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미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왜 오른손인가? 하나님이 왼손 오른손이 있는가? 오른손은 강한 힘을 의미한다. 강한 손으로 너희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1)주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신앙하는가?

(1)지나간 과거 상처에 매여 있거나 실패의식에 잡혀 살아갑니다.

안 된다는 의식. 그래서 도전도 못한다. 내 상처를 건드리면 큰일나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상처를 건드리면 다른 사람이 된다.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탄은 이걸 계속 건드리는 것이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옛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옛 것을 붙들고 사니까 미래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2)현실 문제와 갈등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와 갈등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넘어가지 못한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현실 문제에 걸린 것이다. 그래서 헛갈리는 것이다.

(3)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지도 않은 염려에 불안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다. 그 안에서 하나하나 가고 있는 것인데 모르는 것이다. 마24, 15장, 딤후서, 계시록에 얼마나 잘 나와 있는가?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답을 주시고 두려워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셨다. 믿으시길 바란다.

2)우리가 불신앙 할 때 많은 부분에 손해를 봅니다.

(1)옳은 틀린 생각은 사탄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복음적 생각, 긍정적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육식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다.

(2)염려할 때 받은 축복을 놓치고 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다.

(3)두려움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요일4:18)

두려워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3)실제 삶에 영적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1)삶에 대한 의욕을 놓쳐 버리고 무기력, 무능에 빠진 사람들

(2)우울증, 불면증, 각종 중독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

람들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가는 것이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 되고, 공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음의 중독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2.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롬8:15)

1)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1)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완전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요1:12)

언제인가? 영접하고 믿을 때 법적으로 되어진 것이다.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끝낸 것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한다.

(2)성삼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늘 배경을 가졌습니다.

(3)복음에 빛진 자로서 확신을 가지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롬8:12)

무엇을 빚었는가? 십자가의 피 값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빛진 자인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해라가 아니라 믿는 자가 맞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내 옆에 영혼이 죽는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다.

2)양자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라.

(1)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권세가 임했습니다. (13절)
사도 바울이 늘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 우리는 늘 갈등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성령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2)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14절)

(3)하나님을 아با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입니다. (15절)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다.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3)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롬8:17)
상속자가 무엇인가?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법적인 자녀로 만드신 것이다.

(1)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2)하늘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것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 받았다.

3.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자꾸 다른 인도를 받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1)성령께서 친히 증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친히 증거 하십니다. (16절)

내 자신에게 먼저 증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시는 것이다. 모두에게 알만큼이다. 그런데 먼저 나 자신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예배하면 응답받고 성령충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2)우리 안에 계셔서 세밀히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다.

2)성령의 인도 받는 비밀

(1)언약(말씀)을 확실히 붙잡아라.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그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2)언약(말씀)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 (나의 기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3)특히 현장에 말씀 운동과 성전 운동에 하나 되어 도전하자. (나의 전도)

말씀과 기도와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

3)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다.

(1)지나가는 것에 마음, 시간, 열정 빼앗기지 마라.

과거에 메이지 말아야 한다.

(2)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당연하면서도 감사할 일이다.

내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복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다.

결론)

▶내가 하나님의 후사된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것을 성령이 확증해 주십니다.

후사가 바로 상속자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 상속자가 된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주신다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

▶율법이 주는 영은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무섭고 두려운 영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주는 영을 받은 자는 자유 합니다.

율법에 굴복해야 한다. 우리가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키고 사는가? 지키려고 하면 다 죽는 것이다. 율법에 매여 살면 지키려고 살다가 죽는 것이다. 결국 율법이 주는 영은 종의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은 자유함을 주는 영인 것이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아들이 아닌 것이다. 상속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것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 받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에 따르는 권세까지 부여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을 받은 자이다. 날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분과 권세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증거가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확인하시길 축원을 드린다.